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과교육의 접근 방안 탐색

왕석순*¹⁾

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An Exploratory Study on 'school violence prevention' in Home Economics Education

Wang, SeokSoon*¹⁾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eon-ju University**

Abstract

This Exploratory study applied the content analysis method by documental research to develop the logic of announcing a validity of Korean Education or Home Economics Education's roles and missions for preventing the school violence. As the results, three logics of accessing devices for Korean Education or Home Economics Education got developed. First, adolescents should be changed into an positive perspective like a 'people living' rather than a negative perspective like the 'learner' which is limited in Korean Education. Second, the value of the 'life competency' which has been disparaging is reinforced as an important value of education although the purpose of Korean Education was only one. The life competency is not a talent which is learned naturally by experiences. Because the school violence which is a problem in nowadays is a problem occurred by adolescents as the 'people living' rather than the 'learner', it is needed to renovate an education by a curriculum of reinforcing the 'life competency'. Third, Home Economics Education has been traditionally the typical subject which had a purpose of varied competency development as the 'people living'. Thus, the subjec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ubjects, being able to prevent the school violence in entire Korean Education. The Home Economics Education as the 'life education' has an essence for making adolescents have needed competency to achieve a qualified and happy life over their adjustment.

Key words: 학교폭력(school violence), 생활인(people living), 생활역량(life competency), 생활교과(life education), 가정과교육(Home Economics Education)

1) 교신저자: Wang, SeokSoon. 1200 Hyoja-dong, Jeonju-si JellaBuk-do 560-870, Jeonju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el: 063-220-2331, Fax: 063-220-2053, E-mail: wangwhite@jj.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학교폭력의 문제이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사실 최근에만 있어왔던 현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학교폭력의 문제에 집중적인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학교폭력의 양적 증가와 저연령화, 그 양상의 공포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학교폭력 전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약 17만 명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가진다고 할 정도로 학교폭력이 만연해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학교폭력이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장난삼아 괴롭히거나 가볍게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용과 방법이 학교에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 훨씬 다양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오늘날 매스컴에서 자주 보고되듯이, 집단따돌림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 생명을 잃는 학생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Yoo, 2012).

학교폭력은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유발하여 학교공부에 흥미를 잃게 하고, 무단결석을 잦아지게 하면서 학교생활에서 점점 더 고립되게 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당한 기억이 자꾸 떠올라 집중력이 떨어져 학업성적이 떨어지고 자각이 잦아지면서 이사나 전학을 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하게 되고 심하면 등교거부나 가출, 자살로 이어지는 등,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청소년에게 신체적 고통은 물론 심리적 외상을 남겨 심각한 학교부적응 상태를 초래한다(Lee & Kim, 2011). 즉 학교폭력은 일반적으로 학생 피해자들의 불안, 우울, 고립, 학교기피, 대인관계문제, 사회부적응, 학습부진과 같은 치명적인 신체적, 심리적인 발달장애문제를 유발한다. 폭력상황을 경험한 학생들은 외상 후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제를 갖게 되고, 그것이 내면적 자기파괴 행위나 타인에 대한 공격행위로 연결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Cho, 2012).

이러한 학교현황을 반영하듯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비판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방정환재단이 공동으로 우리나라 전국 초, 중고등학교 학생 6,410명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 행복 지수를 조사한 결과는,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의 만족지수가 53.9%에 그쳐서, OECD 26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2명 가운데 1명꼴은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만족도가 가장 높은 네덜란드(94.2%)보다 40.3% 낮고, OECD 평균(84.8%)에서 30.9% 모자란 수치이다. 특히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답한 학생은 각각 26.5%와 18.3%를 기록,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외로움을 느낀다’는 대답은 16.7%로 일본(29.8%)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Naver News, 2011년 5월 4일자). 이러한 청소년 삶의 만족에 대한 비판적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서 최근의 현안이 되는 학교폭력의 확대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감은 적응적인 행동과 관련된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성인은 5년 이후의 직업에서의 성취와 만족, 성공이 예견되며, 감기와 같은 간단한 신체적 질병부터 암의 주요한 발생, 불안 장애, 주요 우울, 자살과 같은 부정적 결과가 적게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높은 삶의 만족도는 학업성취도를 높이며, 흡연이나 약물복용을 감소시키며, 청소년의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과 청소년기의 친구간의 관계 문제,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와 같은 충동적이고 무모한 행동, 우울과 자살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risch, 2006을 최영희·이재현 역에서 재인용)²⁾.

삶의 만족도에 관련된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최근의 현안인 학교폭력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처방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아서 각종 부적응 행동을 빈발하는 우리나라의 비판적인 청소년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가장 많은

2) 삶의 만족이란 비현실적인 행복이나 환희한 환희와 같은 긍정의 감정과 달리 개인의 선택적 인지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어서 최근의 많은 상담과 치료 현장에서는 ‘삶의 질 치료(Quality of life therapy)’가 도입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삶의 질 치료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적 풍요로움의 증진, 평온의 시간 가지기, 의미 찾기 등으로 구성되며, 삶의 영역에 대한 관리기술의 증진이나 목표추구에서의 감정조절과 같은 다양한 생활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세부 기법들이 활용된다.

시간을 보내며 활동하는 생활 장면에 대한 삶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처방이 보다 근원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청소년이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어디인가? 바로 ‘학교’이다. 또 학교의 활동 시간의 대부분은 교과활동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교과활동시간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근원적인 처방의 마련이라고 사려된다. Yoo(2012)도 2012년 정부에서 마련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경찰이나 법에 호소하거나 가해학생을 처벌하는 처벌 위주의 대책이므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일시적으로 경감시킬 수는 있으나 근원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기에 교육의 본질과 관련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육적 관점에서 출발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책이 필요함에 동의한다면, 2012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의 총론을 수정 고시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는 조치가 상당히 타당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에 개정, 고시된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2-14호)은 학교 교과활동 시간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임무를 교과가 수행하도록 교과 교육과정을 수정하였고, 교육과정 총론을 수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정 고시문에는 인성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교과로 국어, 사회, 도덕 교과만이 제시되어 있고, 체육활동이나 예술교과를 강화하는 방향성만을 강조하여, 기존에 인성교과로서의 성격을 발달시켜 온 가정교과를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나타냈다(Wang, 2012a).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이 보다 근원적으로 추구해야 할 교육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학습자의 인성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가정과교육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와 당위성이 교육의 본질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분석하여 가정과교육이 학교폭력 예방에 교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2. 연구내용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교육적 본질과 교과로서의 가정과교육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수행할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개입 방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둘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가정과교육은 어떤 교육적 가치를 가지며, 이러한 교육적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 전체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또 2011'개정 가정 교육과정은 학교폭력 예방과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는가?

셋째,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교육 정책은 무엇인가?

3. 연구방법과 연구의 절차

이 연구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 교육의 역할과 교과로서의 가정과교육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이와같은 탐색적 연구를 위하여 질적 방법인 문헌고찰에 의한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Ryu(2001)는 가정과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연구방법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정과교육 연구 분야에서 질적 연구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이러한 질적 연구 방법을 취하는 중요한 이유는 질적 연구가 가지는 이와같은 연구방법적인 장점뿐 아니라, 이 연구의 주제가 가지는 성격 때문이다. 아직 가정과교육과 학교폭력을 연계시킨 연구가 구체적으로 시도된 바가 없으므로,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이거나 창의적인 해답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관련 논문에 대한 분석적 고찰을 통하여 도출될 수 있는 해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개념과 실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그리고 교육의 본질과 관련된 교육분야에서의 개입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교육 및 교과 전문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교육

과정 문서(Wang, 2003)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에서의 개입 방안과 가정교육에서의 개입 방안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 분석 결과는 2012년 한국가정교육학회 하계 학술대회의 주제발표 논문(Wang, 2012b)으로 발표되어 토론자(가정교육과 교수, 가족학 전공) 및 다수의 참가자들의 내용 검토를 1차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논문을 수정한 후, 가정교육 전공 교수 1인과 가정교육학 석사학위 소지 가정 교사 3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아 최종 결과를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폭력의 개념과 실태

학교폭력의 정의는 다른 모든 사회적 개념처럼 정의하는 학자의 시각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학교폭력을 정의함에 있어서 학교폭력으로 정의하는 행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기준이다. 여기에는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논의, 폭력주체에 대한 논의, 학교폭력에 포함되는 행위의 내용에 대한 논의 등이 있다(Jeong, 2011).

한국청소년개발원(2003)에서는 ‘학교폭력’을 ‘청소년폭력’으로 정의하면서 “청소년이라는 특정한 생득적·환경적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심리적·물리적 폭력”이라고 정의하였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04)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따돌림 및 그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계한 행위를 의미”라고 정의하였다. Jeong(2011)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상호간에 개인적·집단적 의도성을 띤 채, 반복적이

고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신체적·물리적·심리적 폭력 등과 모든 유형 및 무형의 폭력행위”로 정의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예방 종합 포털 사이트’(http://www.stopbullying.or.kr)에서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청소년에 의해 감행되는 광범위한 청소년폭력 행위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을 청소년폭력과 동의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최근에 학교폭력이 더욱 우려되고 있는 것은 학교폭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도 나타나는 등 저연령화되고 있으며, 그 양상이 심리적 압박에 의한 유형이 늘어나면서 피해 학생의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자살 확대 현상 때문이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전원인 559만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사 결과(교육과학기술부, 2012)를 보면, 응답 학생(139만명)의 12.3%인 17만명의 학생이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의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여 학교폭력이 만연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중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는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의 유형은 협박이나 욕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욕설이나 비방 등 언어폭력(51.2%)과 집단따돌림(13.3%)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피해 학생의 심리적 어려움에 의한 자살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청소년폭력 예방재단의 2010년 학교폭력 전국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학생은 60.8%. 학교폭력으로 자살충동을 느낀 학생이 30.8%, 죽을만큼의 고통을 호소한 학생은 1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폭력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수준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2. 학교폭력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학교폭력의 정도와 양상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정확한 발생 원인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지만(구본용, 2012), 학교폭력의 행동 역시 단순한 어느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즉, 학교폭력을 포함한 청소년 폭력의 발생 원인은 생물학적인 원인, 심리학적인 원인, 사회학적 원인의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구본용, 2012). 정옥분(2008)은 청소년 개인의 신체적 특성, 체격과 유전 등의 생물학적인 원인, 그리고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인 문제나 과거에 한 부정적인 학습경험 또는 도덕적 판단력이 인간의 인지발달에 따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심리적인 원인에서 청소년폭력이 발생된다고 분석하였다. 여기에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효율적인 사회 통제력의 감소, 한 사회 내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좌절감과 불화를 통해 내면화된 아노미의 상태 확대, 지배적 문화와 대치되는 청소년 하위문화에의 소속, 부정적 자기개념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적 압력에 대한 저항 의지부족, 사회적 유대가 약한 청소년, 일탈자로서의 낙인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청소년을 폭력과 비행으로 이끄는 원인이라 하였다. 장휘숙(2009)도 Jessor(1991)의 ‘청소년 위험행동에 대한 개념적 모델’(Risk behavior in adolescence : A psychosoci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ction)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위험행동은 알코올 중독과 같은 개인의 생물·유전적 요인, 가난이나 인종차별과 같은 어떤 특정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환경, 일탈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 인생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느끼게 하는 지각된 환경의 특성, 낮은 자기존중감, 위험 감행경향성과 같은 성격적 요인, 음주나 낮은 학업성취도

와 같은 행동요인들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야기시키는 복합적인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Chung 과 Chun(2012)도 우리나라 중, 고등학생 2057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을 당하는 피해경험이 개인 요인, 가족요인, 또래 및 학교위험요인과 같은 다차원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이고 연령이 어릴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또 부모의 학대가 높을수록, 본인의 비행경험이 많을수록, 친한 친구의 비행이 많을수록, 학교폭력의 피해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 김성이·조학래·노충래(2004)도 청소년폭력이 청소년 개인의 발달·심리적 요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 학교, 또래집단, 그리고 사회환경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정옥분(2008)이나 장휘숙(2009)과 같이 청소년 폭력이 어느 하나의 단순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선행연구(Jessor, 1991; 한상철·김혜원·설인자·임영식·조아미, 2003)를 바탕으로 청소년 폭력에 대한 ‘보호요인’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청소년 폭력의 발생 경로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호요인이라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요인”을 말한다(Park, 1998; 유성경·송수민·임소영, 2000). Fraser(1997)는 보호요인을 “아동이 위험에 대해 대항하거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내·외적인 힘”으로 정의하였다(김성이 외, 2004에서 재인용). 즉 보호요인은 개인이 어려운 상황(예; 빈곤이나 아동학대 등)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촉진하거나, 보호하는 요인을 말한다. 이것은 심리적인 레질리언스(resilience), 또는 탄력성을 말하는 것으로, 우선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는 것으로 비행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것,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능력을 유지하고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심리적 외상으로부터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응유연성 이론, 또는 레질리언스 나 탄력성의 이론적 접근 방법을 말한다. Lee & Kim(2011)도 이러한 탄력성이 청소년의 환경사회적 위험요인과 학교폭력피해

경험의 요인을 증재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탄력성 강화와 환경사회적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청소년 폭력 예방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청소년폭력에서 탄력성 또는 레질리언스인 보호요인의 종류는 연구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Jessor, 1991). 권지은(1998)은 청소년 비행을 억제시키는 변인은 3가지로 개인변인은 준법의식, 자기통제성, 책임감, 타인의 기대에 대한 인지, 자아존중감, 가정변인에는 가정생활만족도, 가족 적응력, 합리적인 양육태도, 형제간의 우애, 학교 및 사회변인에는 학교에 대한 애착과 학교 적응도, 교사의 지지, 사회적 유대와 교사에 대한 애착이라 하였다. 유성경 외(2000)은 청소년폭력의 보호요인으로 개인적, 가족적, 지역, 학교의 4가지 차원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개인적 차원의 보호요인은 긍정적 가치관, 긍정적 자기 정체감, 사회적 유능감이, 가족 관련 보호요인은 부모의 정서적 지지, 부모가 자녀 학습에 관여하는 정도, 지역사회 관련 보호요인은 이웃들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 청소년에 대한 이웃들의 관심, 이웃들의 관계망이었고, 학교 관련 보호요인은 청소년의 학습에 대한 긍정적 가치와 책임감, 학교에서 청소년이 받는 지지였다고 하였다. Kim(2012)은 학교폭력 피해아동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은 부모의 잘못된 훈육, 친구비행, 폭력매체접촉경험이며, 학교폭력 피해 아동이 될 가능성을 낮출 유일한 보호요인이 친구지지라고 하였다. 특히 Kim(2012)은 어떠한 위험요인에 처해 있더라도 이를 억제해줄 수 있는 요인이 내적통제소재, 집 분위기, 교사의 지지라고 하면서, 학교폭력 예방에서 위험요인의 제거와 보호요인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Kim(1999)도 청소년 문제와 보호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청소년이 보호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문제행동을 적게 나타낸다고 하여, 보호요인이 문제행동을 매개하는 관계라고 하였다. 만일 어떤 청소년이 청소년폭력을 감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가지더라도 다양한 보호요인을 잘 개발하고 있다면 폭력 행동이 증대되거나 감소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 폭력에서 보호요인은 청소년폭력 예방 및 감소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폭력 행위는 어느 한

가지 이유에서 감행되기 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나타난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점은 청소년폭력을 감행하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동시에 청소년 폭력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는 보호적 요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폭력 행위를 감행하게 하는 청소년 개인이나 가족, 학교와 또래집단, 그리고 사회는 청소년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 요인들은 동시에 청소년폭력 행동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보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폭력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서는 어느 한 요인의 개선이 아니라 청소년 개인, 청소년의 가족, 청소년의 또래집단과 학교, 청소년의 사회환경 모두가 함께 기능적으로 변화해야 하며, 이 요인들의 변화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점을 찾아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III. 학교폭력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교과로서의 가정과교육의 개입 방안

1. 교육의 개입 방안: 생활역량의 교육적 가치 재조명을 통한 생활교과의 강화

가. 생활역량의 개념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학교이다. 학교는 전통적으로 지, 덕, 체의 조화로운 발달이나 지식과 인격을 겸한 전인적 인간 형성을 추구하는 사회조직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학교는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교과 지식 중심 교육, 학업경쟁에 의한 경쟁적 인간관계 구축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Kim, 2009). 예를들어 입시위주 교육풍토는 진학 중심의 수업과 진로지도에 매진하게 하여 다수의 학생에게 불만과 열등감을 갖도록 만들어 가출, 장기결석, 폭력행위를 초래한다. 또한 이러한 학교분위기는 학생들로 하여금

갈등적 인간관계를 구축하게 하는데 즉 치열한 성적 경쟁으로 인한 경쟁의식 강화와 성적에 따라 거리감이 발생하여 학급 내 구성원들간에 우정을 쌓기 어렵게 만든다. 결국 교실 및 학교 환경은 다수 학생들의 분노, 열등감, 좌절감 등 부정적 감정이 증척되면서 이를 해소할 돌파구를 찾아 폭력적으로 분출한다(Jeong, 2011).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예방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현재 우리 학교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쟁적 입시위주의 교육을 반성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반성은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의 수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은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청소년을 학습자로 인식하고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강조하는 관점이었다. 또다른 하나는 발달 및 사회병리적 관점에서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거나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소년을 하나의 생활인(生活人)으로 전제하고 그들의 잠재적 생활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 개발에 관심을 집중하는 관점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교과서에 제시된 지식이나 원리보다는 사회생활 및 단체 활동 속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능력의 개발이 청소년 교육에서 보다 중요하다는 청소년 개발 교육의 관점이다(Kim, 2009; Yun & Kim, 2006; Choi, 2001).

오늘날의 청소년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교육관계, 가족문제, 범죄, 약물중독과 같은 각종 중독, 경제적 위협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겪을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상황에서 청소년이 하나의 독립된 생활인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생활역량’의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Kim, 2009). 생활역량(life competency)은 “사람이 일상생활 혹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여 상호 호혜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의 감정과 사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한다”(Kim, 2009). 쉽게 말하면 생활역량이란 “학교에서의 1등이, 사회에서의 1등과 다르다”라고 할 때 의미되는 역량을 말하는 것으로, “생활 속 전반에서 필요한 유효적절한 행동을 하게 하는 역량”(Kim, 2009)을 말한다. 또 생

활역량은 바람직한 생활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가치있는 여러 요소들을 향유하거나 실현시킬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말하는데,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단위 요소들에는 구체적으로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부터 안전, 신체적으로 적절하게 영양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 사회적 이동성을 갖추어 있는 것 같은 아주 단순한 것에서부터, 행복한 상태, 자기존중의 실현, 공동체 생활에의 참여, 수치심없이 공중 앞에 설수 있는 것, 사회적 통합의 정도 등과 같은 복잡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Park, 2004).

이를 종합하면, “생활역량이란 바람직한 자신의 생활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가치있는 여러 요소들을 향유하거나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다양한 개인의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생활역량은 개인의 생활에 기반하므로, 발달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은 그들이 각자 자신의 바람직한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생활역량이 모두 다르다. Kim(2009), Yun과 Kim(2006) 등은 국내외 관련 자료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전인적인 청소년과 생활인으로서의 청소년에게 필요로 하는 생활역량과 생활역량을 설명할 수 있는 생활기술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요인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조절역량, 자기성취역량, 대인관계역량, 공동체역량, 창의성역량, 상황대처역량 의 6개의 하위영역을 확인하였고, 이를 구성하는 22개의 생활기술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청소년 생활역량을 일반화하기에는 후속연구를 통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며, 청소년폭력의 보호요인인 자아존중감이 제외되어 있어서 한계를 보인다. 그러나 독특한 인생의 발달시기인 청소년의 생활세계에서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을 체계적으로 규명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다음의 <Table 1>은 이들 연구자가 제시한 생활역량과 생활기술의 정의이다.

Table 1. The Definition of Life Competency of Adolescents and Life Skill

Life Competency	Definition	Life Skill	Definition
self-control competency	Reasonably manage the emotions and body can adjust to a variety of situations, and consumption behavior, and the ability to control	emotional control skill	to Aware of the properties of individual and in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to control self-emotions
		physical management skill	Management and discipline their own bodies
		time handling skill	Planning and efficient utilization of time management
		expenditure handling skill	to control the desire consume and to form the habit of rational economic
self-achievement competency	Voluntary achievement motivation, goal setting, and to explore career	motivation setting skill	positive behavior and the formation of spontaneous decision
		goal setting skill	Have a vision, set specific goals and plans
		Career exploration skill	Understand their aptitudes and interests, and career and vocational prepar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Express self thoughts and Understand feelings and intentions of others, and regulates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a harmonious relationship and conflict	expression skill	Express own feelings and thoughts effectively to others
		listening skill	To organize and understand the intentions or feelings of others
		relationship skill	To form and maintain wide and intimate relationships with others.
		conflict control skill	to regulate me and other's conflicts and to mediate other parties.
community competency	As members of the community has manners. Leadership expressed in service, participation, cooperation.	manner skill	As a member shall comply with the rules. and to ensure manners
		volunteer skill	Commitment by volunteering for others and society
		cooperation skill	Cooperate for a common goal.Practice for a common goal
		leadership skill	Leadership can lead the members of the voluntary action
creativity competency	A given task, and the issues facing determined and can be solved the creatively an reasonably	creativity skill	to planning feasible methods and procedures through Creative thinking
		skill	to Active and rational decision-making in everyday life
		problem solving skill	Given task and the problem in everyday life is able to solve systematically
dangerous situation handling competency	to Reasonably decision-making and respond appropriately in the problem situation	cellular phone addiction coping skill	to overcome and cope with Pathological life due to excessive cell phone use habits
		internet addiction coping skill	to overcome and cope with Pathological life due to excessive internet use habits
		Harmful Material coping skill	to recognize the hazards of drugs. Smoking, alcohol. Also to cope with the temptation
		violence coping skill	Respond quickly about the threat of physical and mental.

* references: Kim, J. H.(2009), Yun, M. H. & Kim, J. H.(2006)

나. 생활역량의 교육적 가치와 생활교과의 교육적 의의

청소년은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사회생활을 할 때 생활역량을 발휘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직업세계에 있어서

생활역량은 직업기초능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혀져 있다(Kim, 2009). 청소년이 하나의 독립된 생활인으로 자신의 바람직한 생활세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청소년 개개인이 생활역량을 개발하고 있어야 한다. 청소년

이 자신이 처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폭력을 감행하지 않거나 또는 이에 맞서는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청소년 생활에 적절한 다양한 생활의 역량을 개발하여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같은 생활역량은 단지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가지는 최근의 교육의 패러다임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개념이다. 2009개정 교육과정은 교과활동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개발되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특성으로 개발한다고 하였다(Wang, 2011). 생활역량은 인간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람직하게 구성해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생활역량이 개발되는 교과를 지원하는 것이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교육의 방안이라 사려된다. 이처럼 생활역량이 가지는 교육적 목적과 교육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이를 우리 교육에서 실현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본질적인 해결책의 출발점인 동시에 교육적 본질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후기 산업사회 이후의 시기부터 교육과정에서 '생활능력'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고시하여 왔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총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라고 하여 교육을 통하여 '추구하는 인간상'을 고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첫째, 인격의 도야, 둘째 자주적 생활능력, 셋째 민주시민의 자질의 3가지가 된다. 교육이 아동과 청소년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여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격과 자주적 생활 능력, 민주시민의 자질이란 3가지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에서 추구하는 이와같은 인간상은 제 5차 교육과정(1987년 고시), 제 6차 교육과정(1992년 고시), 제 7차 교육과정(1997년 고시), 2007개정 교육과정(2007년 고시)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http://ncic.re.kr>), 이상의 인간상은 후기

산업사회가 정착된 1980년 후반인 제 5차 교육과정부터 일관적으로 추구되어 온 인간상이라 할 수 있다. 즉 학습자 뿐 아니라 생활인(生活人)으로서의 청소년의 개발을 위하여 생활의 능력 개발에도 교육의 목적을 분명하게 고시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목적은 최근의 학교폭력 사태의 확대로 표출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듯이 긍정적인 교육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는 우리나라가 교육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과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방안이 서로 괴리되어서 나타난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의 확대에 따라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수정 고시 내용을 공청회를 통하여 공개한 바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³⁾. 이 개정 고시안은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을 통하여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에서는 체육과 예술교육, 특히 체육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개정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인성교육이란 보다 긍정적이며 건전한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을 위한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학교의 의도적이며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을 통하여 형성시켜 주려 하는 교육"(Hyun, Choi, Cha, Ryu, & Lee, 2009)이다. 이러한 인성교육의 정의를 고려하면, 삶을 위한 교육 즉 생활교육에 대한 고려없는 인성교육 강화를 표방한 이번 2009 개정 고시안은 본질을 놓친 개정안이다(Wang, 2012a). 즉 인성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할 삶의 교육을 중심으로 한 가정과교육이 개정안에 누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체육이나 예술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그 외의 다른 교과가 상대적으로 교육과정의 편성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증폭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교육과정 편제상의 변화로 인하여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자주적 생활능력의 육성을 표방하는 교육의 목적은 훼손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특히 부족하기는 하지만 고등학교 '생활과교과'를 통해 가시화되어 있는 우리 교육에서의 생활역량 육성에 대한 교육은 체육과 예술교육만을 배타적으로 강화한 2012년 교

3) 이 수정 고시문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문 제 2012-14호로, 2012년 7월 9일 자료 고시되었다.

육과정 개정안으로 인하여 오히려 교육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을 통하여 우리 교육에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은 학교폭력에서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하는 소극적 방안에 머물지 말고, 청소년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즉 청소년을 독립된 생활인으로 조망하고 그들이 자주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미 우리 교육에서 표방하고 있는 교육목적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의 교육 목적에서는 학교폭력을 감행하지 못하게 하며, 또 학교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이에 저항하도록 하는 다양한 보호요인인 청소년의 자주적 생활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이미 고시하여 왔다. ‘자주적 생활 능력을 가진 인간’을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 실현을 위해 생활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교육 분야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된다. 24시간 성인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청소년들에게 자생적인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급에서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의 4가지 ‘교과영역’ 개념을 교육과정 편제에서 도입하였다. 이 4가지 ‘교과 영역’은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의 영역이라 보이며, 여기에서 바로 생활교육의 필요성을 수용한 ‘생활교과군’으로서 기술·가정과목을 고시하였다. 따라서 전인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교육은 생활교육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편제상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교육에서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은 교육의 목적 실현에 근접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상의 개혁에서 출발한다. 모든 청소년은 지적인 성장과 체력의 향상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자신의 생활에서 유효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생활의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도 필요로 한다. 아무리 좋은 교육활동이라도 일정 시기에 어느 하나로 편중된 교육활동은 오히려 청소년의 성장에 유해하다. 교육과학기술부 2012-14호의 교육과정 총론 고시문은 지육교육(智育教育)을 반성하고 있지만, 반대로 이번

에는 몸의 교육이나 예술교육만을 상대적으로 강화하여, 인간의 고른 성장을 지향하는 전인교육의 이상과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 따라서 이 개정안으로는 인성교육의 실현이 불가능하며, 현안인 학교폭력의 근절은 더욱 더 불가능하다. 교육 분야에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모든 교과의 교육활동이 청소년에게 골고루 이수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변혁에서 시작될 수 있다. 즉, 기초과목, 탐구과목, 체육·예술과목, 생활·교양의 4가지 교과영역이 고르게 학습자에게 이수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실현될 때 전인교육이 실현되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교육의 구조를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 폭력을 근절하는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바람직하게 구성하도록 하는 개인의 능력인 생활역량을 개발하도록 교육이 지원하는 것이다. 청소년은 학습자이며 동시에 생활인이다. 학교폭력은 학습자로서 청소년이 나타내는 문제이기 보다는 생활인으로서 나타내는 문제이다. 학교폭력을 교육이 담당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면, 교육이 생활인으로서의 청소년에게 필요한 역량을 개발해주는 것으로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 교육에서는 교육의 목적으로 표방되어 온 생활역량을 육성하는 것에 소홀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 철학이 지배적이라 생활역량의 교육적 가치를 폄하하는 견해가 크기 때문이다. 또 생활의 역량은 “경험적으로, 자연적으로, 저절로” 학습되어지는 역량이라고 오판하는 비전문적인 견해 때문이기도 하다. 생활의 역량은 결코 지적 역량이나 신체적 역량에 뒤지지 않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인간의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는 미래사회에서는 생활의 역량만이 기계가 대치하여 습득하도록 교육시키지 못하는 유일한 영역으로 남을 수 있다. 또 생활의 역량은 절대로 저절로 학습되어질 수 없다. 물론 대인관계 역량이 경험을 통해 저절로 습득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경험으로 습득되는 그 이전까지 청소년들은 너무 많은 문제상황에서 위협에 노출되고 만다. 교육이 그 이전에 개입하여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해 줄 때 교육의 힘이나 가치가 증명될 수 있다. 생활 역량은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교육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온 가치이다. 이러한 와중에 청소년들은 학교폭력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확대하여 교육의 관행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제 교육의 힘으로 팽배한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역량의 교육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생활역량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는 생활교과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과정 편성의 개혁이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정과교육의 개입 방안

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과교육의 역할

교육분야에서 학교폭력을 청소년의 생활역량 개발을 통해 근절하려는 해결 방안을 처방으로 제시할 경우,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생활역량 개발을 교과의 성격과 목표, 내용에 폭넓게 반영하고 있는 교과는 유일하게 가정과교육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1차 교육과정시기에서부터 2011개정 교육과정까지 가정과교육이 표방하는 교과의 성격은 ‘생활교과’라는 점이다(Wang, 2003). 물론 1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2011개정 교육과정의 시대·사회적 상황이 급변하였기 때문에, 생활교과로서 포함하고 있는 생활의 역량은 교육과정 시기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가정과교육이 청소년의 생활 역량을 개발하는 교과임은 모든 교육과정 시기에 표방되어 온 교과의 성격이다. 2007 개정 실과(기술·가정)교육과정에서는 “실과(기술·가정)는 개인과 가족이 전 생애 동안에 경험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가정생활과 일...을 이해하고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 역량을 길러 줄 수 있는 교과...”라고 고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과를 통한 활동으로 학습자가 내면화할 역량 중심 개발 교육과정을 표방한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가정생활 영역의 핵심역량은 ...자기관리 능력, 실천적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진로개발 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가정생활 영역 학습의 지향점은 ... 자립적이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하며, 생애설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

계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라고 고시하여(교육과학기술부, 2011), 청소년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과임을 명시하였다. 특히 2011개정 교육과정의 가정과학 과목은 중등단계에서 학습자가 접하는 가정과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를 함의하는 과목으로, 교과 고유의 성격과 목표를 잘 드러내고 있다. “가정과학은 생활·교양군의 선택과목의 하나로서 학생들에게 행복한 삶의 영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의 역량을 길러주며, ...미래의 자신의 개인생활과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고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우리 교육은 “자주적 생활능력을 기르는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 교육 전체의 목적에서 이러한 자주적 생활능력의 함양을 교과의 성격과 목표로 표방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교과는 가정과교육이 유일하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그 어떤 대책도 24시간 동안 학교폭력을 감시하거나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학교사회와 교육은 청소년의 힘을 길러 주는 것으로 처방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법이다. 바로 생활의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역량 함양’이라는 교육의 근원적인 목적 수행을 위한 임무를 우리 교육에서는 제1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2011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생활교과인 가정과교육에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 교육과정에서 부과한 임무를 가정과교육에서는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학교폭력 예방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한 2011' 개정 가정 교육과정의 내용요소 분석

가정과교육이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교육과정에 기인한다. 학교에서의 가정과 교육활동은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1'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에서 강조한 내용요소가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2011' 개정 가정 교육과정은 청소년의 자기 이해 및 친구관계를 교육내용에 반영하였지만, 청소년이 당면한 현

실 과제 중 가장 관리가 필요한 시간과 스트레스의 해결 및 경제적 문제인 소비생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역을 ‘청소년의 자기관리’ 영역으로 통합하여 대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또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도움을 통하여 자기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서비스’ 증영역을 신설하였다. 청소년의 자기 관리의 자신의 주도적 능력을 통하여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혼자서만 해결하려는 성향으로 청소년 문제가 비약하거나 확대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이므로, 청소년의 자기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 서비스’를 교육내용에 반영하였다. 또 결혼과 가정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환경인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반영하였고, 성취기준에서 이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가족유형의 다양화로 인한 가정의 기능 축소, 예측 불가능한 각종 범죄와 자연재해의 증가로 청소년의 방황이 더욱 증가되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심리적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교육내용에 반영하였다. 또, 21세기의 모든 남, 녀는 전생애를 통하여 일의 세계와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과 가정 양립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내용, 저출산·고령사회에의 대응 및 건강 가족문화, 지속 가능한 소비생활 등과 같이 가정이 주도하는 건강한 가정생활문화의 확산과 같은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을 교육과정에 대폭 반영하였다.

가정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은 가정학의 고유한 학문적 대상이었던 가정생활이 어느새 타학문 분야의 중요한 현상이나 목표가 되어 버린 이즈음에 가정과가 지향하여야 할 고유한 목적과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행복한 삶’의 성취를 중심으로 한 긍정성·관심, 배려, 사랑, 돌봄, 나눔 등의 함양을 교육내용과 성취기준에서 일고나되게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서의 변화는 행복한 교실, 행복한 학교 건설에서 가정과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반영한 내용으로 해석된다. 2009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가정생활에 관련된 실천적 능력의 함양을 위한 학습자의 실제적 체험 위주 학

습을 강조하고, 봉사활동과의 연계를 강조하여 인성교육의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다(Wang, 2011).

이상의 2011'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은 아래의 <Table 2>와 같다. 2011'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개발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면서 성취기준을 교육과정에 함께 고시하였는데, 2011'개정 가정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Table 1>의 청소년의 생활역량 및 생활기술을 연계시켜 분석해 보면 다음의 <Table 2>와 같다.

잠재적 교육과정의 성과를 고려하고, 다른한편으로는 성취기준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특정 핵심역량이 함양된다고 연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과잉 단순화 또는 과잉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Table 2>는 가정과교육이 교육내용 전반에서 청소년의 다양한 생활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가정과교육에서 성취를 강조하는 이러한 다양한 생활의 역량이 청소년의 생활역량과 관련되어 연계됨을 보여준다. <Table 2>를 보면 우리 교육에서 가정과교육이 가지는 고유한 임무는 청소년의 생활역량 개발이며, 이러한 임무는 2011' 개정 가정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에 잘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정과교육에서는 청소년의 생활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적응’의 가치를 넘어서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의 성취’를 교육의 목적으로 지향하는 교과로서의 임무를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적 개입을 위한 정책 제언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 분야의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학교폭력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의 개입과 교과로서의 가정과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삶의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의 적응 비율이 높다. 학교폭력은 생활인으로서 청소년이 나타내는 부적응의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에서의 관점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청

Table 2. 2011' revised National Curriculum(Home economics Education area)/The Life Competency of Adolescents

	National Curriculum (Home economics Education area)	The Life Competency of Adolescents
Technology·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e 1-3 for middle school)	○ Understanding of Adolescents · Adolescents Development · Gender & Friend Relationship in Adolescents	- Self - esteem, self - identity - Interpersonal relationships(relationship building, conflict regulation), self-control(physical management, emotional control)
	○ Life of Adolescents · Creating a healthy diet and eating · Clothing and self-expression · Housing and living environment	- self - identity - self-control(physical management, Reasonable consumption) - Community(manners, cooperation, and volunteer participation) - Creativity(creative planning)
	○ Self-management of Adolescents · time and stressmanagement for Adolescents · Adolescents Consumer · Adolescents welfare services	- Self control(emotional control, use of time, a reasonable consumption) - community(Cooperation, leadership) - self-achievement(motivation formation, goal setting) - To deal with the situation(cell phones addiction, Internet addiction, cope with hazardous substances, violence)
	○ Understanding of Family · Changing Families and Healthy Family · Family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 Interpersonal relationships(expression, listening, relationship building, conflict regulation) - community(Manners, cooperation)
	○ Practice of eco-friendly Home life · Creating an eco-friendly diet and food making · Eco-friendly Clothing life and Clothing reform · Sustainable living space and Decorate the main living	- Community(Manor, volunteer participation, cooperation, and leadership). - Creativity(creative planning, decision-making, problem-solving)
	○ Career and Life planning · Career exploration and life planning · Work and family balance and Family welfare services	- Self-achievement(motivation formation, goal setting, career exploration) - Community(volunteer participation, cooperation, leadership). - Creativity(Decision-making, problem solving)
Technology· Home economics Education (for high school)	○ Row-birth-rate · Aging Society and Family · Love and Marriage · Parenthood and Child rearing · Independent Aging life	- Interpersonal relationships(expression, listening, relationship building, conflict regulation) - Community(volunteer participation, cooperation, and leadership). - Self-achievement(motivation formation, goal setting, career exploration) - Self control(emotional control, physical management)
	○ Family leads the happy life culture · Healthy Family and Sustainable consumption life · Caring & Sharing Practice through Clothing · Food · Housing life	- Community(Manners, volunteer participation, cooperation, leadership). - Creativity(creative planning, decision-making, problem-solving) - Self control(emotional control, Reasonable consumption)

소년을 학습자로 제한하지 말고 청소년을 ‘생활인’의 관점을 확대하여 조망하고, 생활인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해 주는 교육적 고나점의 방향을 전화하도록 하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생활역량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는 생활교과의 교육적 가치를 재조명 하고, 교육과정에서 생활교과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교육과정의 편제상의 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한다. 최근에 학교폭력 문제는 생활인으로서의 청소년이 나타내는 생활의 문제이다. 따라서 생활

역량을 기르는 생활교과를 전체 교육과정에서 강화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우리 교육과정에서 생활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임무를 가진 교과는 생활교과이다. 생활교과 이외의 교과들은 교과의 성격이나 목표, 교육내용에서 청소년이 직면한 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구성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육성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생활능력의 함양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모든 청소년이 폭력을 감행하거나 폭력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 다양한 개인의

환경적 어려움을 증대하는 변인이 바로 청소년 개인의 생활역량이다. 이러한 생활인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해 주는데 목표를 둔 생활교과를 교육과정에서 강화하는 것은 학교폭력이 더 확대되기 이전인 현 시점에서 교육분야에서 실시할 수 가장 적절한 처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인성교육의 실현을 위해 2009개정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한 2012년 7월 고시 교육과정 총론은 생활교과를 인성교육 실현 교과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본질을 놓친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철회하거나 수정, 고시되어야 함을 교육 정책가와 당국자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셋째, 가정과교육이 청소년의 바람직한 생활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생활역량을 개발하는 데 헌신할 수 있도록 가정과교육의 교육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교육과정의 구조를 개편하고, 교육과정을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 교육의 전체 교육과정에서 생활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임무를 가진 교과는 생활교과이며, 대표적인 생활교과는 가정과교육이다. 2011' 개정 가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생활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교과의 성격과 목표, 교육내용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가정과교육은 21세기 현 사회에서도 전근대적인 이미지의 교과로 오해받고 있어 교과의 본질이 여러 교육전문가에게 폄하되고 있다. 가정과교육은 청소년이 생활인으로 자주적인 생활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개발해 주는 교과이다. Baek 과 Wang(2012)은 가정교육의 전공자를 포함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들에게 가정교과는 '사회적 편견으로 교육적 당위성에서 소외되고 있는 교과'라는 인식이 있다고 하였다. 가정교과는 생활인으로서의 청소년이 삶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역량들을 개발해 주는 교과이다. 따라서 가정교과는 행복한 삶의 설계에 기여하는 행복 디자인 교과(Baek & Wang, 2012)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교과로서의 가정과교육이 전체 교육과정에서 정당하게 재평가 되어야 한다. 집중이수제는 물론, 특정 교과만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2009개정 교육과정 수정보완 고시문의 각종 독소 조항을 제거하거나 수정하여 가정과교육이 청소년들에게 교육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과정의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넷째, 학교폭력은 학교 주재 학교경찰이나 상담교사가 예방할 수 없다. 오히려 모든 교과의 교사가 학생 상담에 대한 소양을 가지고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교사의 상담 소양 제고를 위한 재교육을 강화하고, 예비교사 교육과정에서 상담소양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학교 경찰이나 상담교사의 학교 배치를 확대하고 있다. 1인의 상담교사나 학교 경찰은 수백명의 학생 이름조차 기억하기도 어렵다. 학교활동은 교과활동 시간이 위주가 되므로 모든 교사에게 상담적 소양을 제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학생과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상호관계를 가지는 모든 교과의 교사와 담임교사가 상담적 소양으로 학생을 관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교사의 상담적 소양을 제고하기 위한 양질의 전문가에 의한 실제적인 재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예비교사의 상담소양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양성 과정에서 상담 소양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인성보다는 성적 위주로 임용되는 현재의 교원 임용제도의 개선도 함께 구안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에서의 가정과교육 시간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17주간의 삶의 질 치료 프로그램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정과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사에게 제공하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가정과교사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다양한 생활역량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둔 가정과교육과정이 17주의 중등 교육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모든 학습자는 삶의 질 치료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정과 교육과정을 청소년의 생활역량 개발에 적합하게 재구성 할 수 있는 가정과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개설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가정과교육이 17주간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심리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가정과교육 기반의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IV. 요약 및 제언

학교폭력이 나날이 확대되는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를 해결하는 처방은 보호와 처벌 방안의 강구라는 소극적 접근에서, 폭력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폭력에 대항 할 수 있는 청소년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해 주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접근으로 변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목적의식에서 출발하여 우리 교육 및 가정과교육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어떠한 개입 방안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탐색하였다.

그 결과, 우선 교육분야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관점을 학습자에서 생활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 청소년이 자신이 처한 다양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생활역량’의 교육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이를 강화하는 교육과정의 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생활역량을 기르는데 목표를 둔 ‘생활교과’를 전체 교육과정에서 재평가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가정과교육이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우리 교육에서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은 청소년의 생활역량을 기르는 생활교과로서의 임무이다. 가정과교육은 전통적으로 우리 교육과정에서 생활교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2011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다양한 생활역량을 기르는 것과 연계되어 있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이상의 교육 및 가정과교육에서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교육적 처방이 수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다양한 교육에서의 정책이 실시될 것을 주장하며 교육과정 개혁과 관련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과정 문서와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에 대한 내용분석 방법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 교육의 역할과 중등 가정과교육에서의 역할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육과정 문서와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인 내용분석 연구라는 한계점을 가진다. 추후 연구는 이 연구에서 제안한 생활교과나 생활역량에

대한 개념을 보다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 또한 가정과교육이 생활교과로서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교과임을 증명하는 학교 현장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이 연구의 이론적 주장이 실증화되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가지는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가정과교육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과임을 주장할 수 있는 이론적 논거의 출발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실과(기술·가정)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 _____ (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 _____ (2011). *실과(기술·가정)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 교육과학기술부 (2012)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 _____ (2012)b. *2012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조사 결과(배포용)*.
- Baek, M. K., & Wang, S. S. (2012).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recognition measurement of Home economics Subjec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4(2), 101-116.
- Choi, C. W. (2001). A Study on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youth leadership life skil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Cho, Y. O. (2012).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tudent-Teacher and Child-Parents Association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and Psychological Depression Symptom. *Korean Journal of Victimology*, 20(2), 233-256.
- Compas, B. E., Hiden, B. R., Gerhardt, C. A. (1995). Adolescent development: Pathways and process of risk and

- resilience. *Annual Review in Psychology*, 46, 265-293.
- Chung, H. E. & Chun, J. S. (2012). Risk Factors of Adolescents' Victimization by School Violenc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1), 195-212.
- Frisch, M. B. (2006). Quality of life therapy. 최영희 · 이재현 (2010) 옮김. *삶의 질 치료-긍정심리학과 인지치료에 삶의 만족 접근법 적용하기*. 시그마프레스.
- Hyun, J., Choi, S. G., Cha, S. H., Ryu, D. Y., & Lee, H. K. (2009). **학교 인성교육 실태 분석 연구-중학교를 중심으로**-.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RP 2009-09.
- Jeong, H. T. (2011). A Plan for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d Conflict Solution: Character Education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Ethics Studies*, 83, 123-162.
- Jessor, R. S.(1991). Risk behavior in : A psychosoci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ction, *Journal of Adolescence Health*, 12, 597-605.
- Kim, M. K.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peer group in the childhood and the attitudes toward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 Kim, J. H. (2009). **청소년복지정책과 실천**-청소년 생활역량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과복지사, 137-178.
- Kim, S. H. (2012). An Analysis of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Bullied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1(3), 5-17.
- Lee, E. H. & Kim, N. S. (2011). A Study on the School Adaptation of Junior Highschool Student who Experience School Violence: Application of the Resiliency Model.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4), 71-89.
- Naver News (2011. 5. 4).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 지수 OECD 최하위.
- Park, S. B. (2004). An Integrated Model for Studying the Quality of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5(3), 159-179.
- Park, H. S. (1999).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High-Risk Adolescents in Pover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37(1), 195-216.
- Ryu, S. H. (2001). Review of Qualitative Research on Home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3(1), 1-11.
- Wang, S. S. (2003). Document Research to Identify the Goal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5(2), 79-99.
- _____ (2004). The Systematization of personality Education contents in the 7th Curriculum for Home Economic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6(2), 13-26.
- _____ (2011). The Character Educa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focus on Gratitude and Caring.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7(1), 117-142.
- _____ (2011). 2011' 가정과 교육과정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기술·가정 교과와 가정과교육 분야 교육과정 개발(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제1차 워크숍' 자료집*, 61-83.
- _____ (2012)a. 본질을 놓친 교육과정 개정. *한국일보* 2012년 6월 21일 32면 게재문.
- _____ (2012)b.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중등 가정과교육의 접근 방안. *Proceedings of the 2012 Summer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Conference*.(pp. 53-80)
- Yoo, J. B. (2012). School Violence and Its Preventing System in Korea: A Philosophical Critique.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4(3), 87-106.
- Yun, M. H., & Kim, J. H. (2006). The Development of the Tests and Programs Aimed at Enhancing the life Competencies of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19(2). 173-197.
- Yun, M. H., & Jang, A. R. (2007). A study of Life competency for adolescent at risk in Busan area.. *Bus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0(1), 55-79.
- 구본용 (2012).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책**. 제 15회 창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심포지엄 자료집, 3-12.
- 김성이·조학래·노충래 (2004). **청소년복지학**. 집문당.
- 유성경·송수민·임소영 (2000). **비행에서 탈비행으로**. 한국청

소년상담원 연구보고서.
장휘숙 (2009). **전생애 발달심리학**-제 4판. 박영사.
_____ (1995). **청년심리학**. 장승.
정옥분 (2008). **청년발달의 이해**-개정판. 학지사.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2011). 2011년 학교폭력 트렌드 발표

및 대책 강화 촉구 기자회견문
한상철 · 김혜원 · 설인자 · 임영식 · 조아미 (2003). **청소년 문제 행동-심리학적 접근**. 학지사.
<http://ncic.re.kr>.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http://www.stopbullying.or.kr>

<국문요약>

이 탐색적 연구는 문헌고찰에 의한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 교육 및 가정과교육의 역할과 임무 수행의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려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우리 교육 및 가정과교육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접근할 수 있는 세가지의 논리가 개발되었다. 첫째, 우리 교육에서 청소년을 학습자라는 소극적 관점으로 제한하지 말고 ‘생활인’이란 보다 적극적인 관점으로 변화시킨다. 둘째, 우리 교육의 목적의 하나였으나 그 가치가 폄하되어 온 생활역량을 교육의 중요한 가치로 강화한다. 생활역량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경험을 통하여 습득되는 자질이 아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는 학습자가 아닌 생활인으로서 청소년이 나타내는 문제이므로 생활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전통적으로 생활인으로서의 다양한 역량 개발에 교과교육의 목적을 두어 온 대표적인 교과는 가정교과이다. 따라서 가정과교육은 우리 교육 전체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과이다. 생활교과로서의 가정교과는 청소년이 당면한 다양한 생활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며, 적응을 넘어어서 삶의 질과 행복한 삶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데 그 본질을 가지고 있다.

■ 논문접수일자: 2013년 1월 28일, 논문심사일자: 2013년 1월 29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3월 25일